

<b>2026년 7월, 출범 확정</b> <b>제물포구·영종구</b> <b>서구·검단구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이제는 인천입니다 <b>2025 APEC INCHEON</b>
배포일자		2024년 5월 19일(일) 총 2매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 당 자	• 물류정책팀장 이양숙 ☎440-3871 • 담당자 천주현 ☎440-3872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시, 전국 시도 최초로 ‘한국로지스틱스대상’ 수상**  
**- 광역 자치단체 최초, 경쟁력 있는 물류환경 조성, 디지털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-**

인천광역시는 5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회 ‘한국로지스틱스대상’ 시상식에서 공공단체 부문 ‘대상’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국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및 산업 전문가, 연구자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광역 자치단체에 수여한 첫 ‘대상’이다.

인천시는 3년 연속(‘22년 ~ ‘24년)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됐고,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인천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있는 물류환경을 조성해 왔다. 또한 수요대응형 스마트 적재관리시스템 구축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특히, 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과 해외 플랫폼의 저가 및 빠른 배송의 공세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인천도시철도 1, 2호선 역사를 활용한 「소상공인 반값택배」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.

나아가 「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(2023~2032)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항만 배후단지 조성 지원, 인천공항만 내 친환경 첨단 기반시설(인프라) 구축, 항공정비산업(MRO) 지원 등 지역 및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.

김원연 인천시 물류정책과장은 “민간 물류분야 최고 기관으로부터 시의 노력을 인정받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며 “앞으로도 ‘디지털 물류선도·글로벌 성장엔진 인천’ 구현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#### <시상식 사진>

